



백두산에도 쓰레기문제 심각해

요즘 백두산(중국측에서는 장백산)에 관한 것들을 매스컴에서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다.

수박절 훔치식이 대부분이지만 개증에는 폭포쪽 천지(天地) 주변의 쓰레기 이야기를 6단 제목으로 다룬 일간신문도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작년과 금년 두차례나 백두산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비교적 잘 알기 때문이다.

백두산(장백산)은 중국측 천지 주변만 해도 9.82km나 되는 광활한 곳인데 그중에서도 폭포쪽 천지일대는 7~8월 행락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환경파괴가 걱정될만도 하다.

중국측 백두산(장백산)을 오르는 코스는 세갈래 길이 있다.

그 첫째는 장백현에서 오르는 길인데 전문적인 등산가외에는 이 코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너무 멀고 2~3일씩 걸리는 전문 등산코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 환경은 손상없이 자연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는 편이다.

둘째는 백두산 등산이나 관광객을 위해 입구쪽에 천지빈관(호텔)을 새로 건축하고 금년 8월 1일에 개장하여 누구든지 이곳에 투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등산입구 관문을 통과하여 한참 올라가면 길이 두갈래로 나뉘어진다. 왼쪽은 중국군 기상대쪽으

오요한/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이사

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온천과 폭포쪽 천지로 가는 길이 된다.

기상관측소쪽은 도로 보수 확장관계로 8월말까지 폐쇄조치됐던 바 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보로 가야 하는데 3~4시간이상 걸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관광객들은 이 코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 길의 자연환경도 문제가 없다. 설령 산정상까지 올라다하더라도 기상관측소 장병들 감시 아래서는 아무래도 질서를 지키게 마련인 이유도 있다.

필자도 거의 도보로 이 코스를 따라 금년에 백두산(장백산)을 올라갔는데 작년에 왔을때와 똑같이 깨끗한 모습이었다.

세제는 온천과 폭포쪽의 천지로 가는 코스이다. 차로 온천 근처의 호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은 이 코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정상에서는 볼 수 없는 평지와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온천서 폭포를 지나 오르는 가파른 언덕길 3km는 역시 고단한 코스이다.

7, 8월 성수기에는 보통 여행사에서 새벽 일찍 있다가 돌아오게 스케줄을 잡는다. 아침 일찍 갔다가 빨리 내려와야만 당일로 안도나 엔지(주정부소재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침을 먹고 아홉시쯤에 올라갔다고 하자. 내려오는 12경엔 올라오는 인과를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년에 경험하였지만 올라오는 인과들 때문에 내려오는데 네시간이나 걸렸다.

대부분이 한국인(연변지방거주)이 아닌 중국사람들인데 광둥성이나 복주성 남쪽 중국 본토에서 관광을 겸한 피서오는 사람들로 길이 메워진다.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피서지가 바로 장백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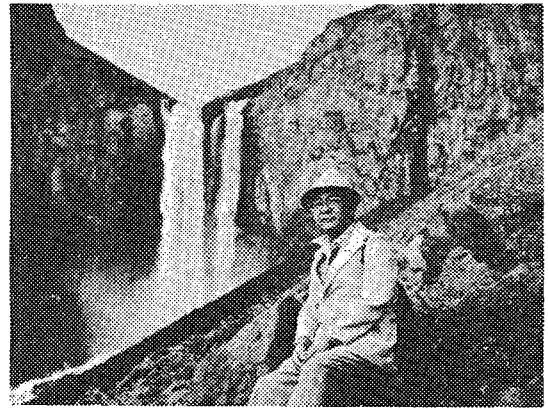
한국에선 여름철 피서지로서 해수욕장을 많이 찾는데 비해 중국인들은 장백산 즉 동삼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꼽고 있다.

1987년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 옹이 백두산을 오르고 돌아가면서 이 좋은 경관을 인민들에게 개방하라고 지시한데 힘입어 길림성 당국이 도로건

설 등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작년에도 도로 확장이 한창이었는데 금년에는 온천폭포쪽까지는 2차선 도로가 거의 완성되었고, 기상대쪽 산꼭대기까지의 도로확장에 나서고 있었다.

9월 3일이 연변조선족자치정부 수립기념일이어서 그날까지 완성시켜보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작년에 갔을때 도로확장 노동력이 거의 중국인들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자치정부까지 수립했는데 왜 우리 민족의 노동력이 참여되지 않고 있는지 유감스러웠는데, 이번 기상대쪽 도로공사에는 한국인 노동력이 3분의 1정도 투입되고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장백산(백두산) 폭포옆에 앉은 필자

폭포쪽 천지는 우리나라의 쓰레기 투성이인 관광지를 연상할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다.

폭포쪽으로 해서 천지로 오는 길목에서 보고있노라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수박 한통씩을 들고 올라온다. 덕분에 천지주변은 수박껍질로 동산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곧 분해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비닐봉지, 빈병, 강통 등은 되 가져가지 않아 여기저기 나뒹구는 경우가 많았다.

연변조선족 동포들은 백두산을 영산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깨끗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비해 중국인들은 아랑곳없이 마구 버리고 가는태도를 보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산쓰레기 되 가져오기운동」이 그곳에서도 전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